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월 1일(주일) 제1130호

2017년 온누리교회 표어

## 돌이키면 살아나라라

### 더 성숙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한 해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로 시작 ... 매월 알찬 행사 풍성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 온누리교회는 '돌이키면 살아나라라'를 표어로 선포했다.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비전교회 컨퍼런스(2월), 목양대회(3월), 고난주간 십아예배(4월), 회복축제(4월), 존파이퍼 초청 집회(5월), 마리아행전(6월), 러브소나타 10주년(7월),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8월), 율어라 한반도(9월), 부흥축제(10월), 임직식(11월), 장로장립식(12월) 등 매월 굵직한 행사가 이어진다.

#### 1월 1일, 8일 '선교헌금 작성'

올해도 온누리교회의 새해는 선교로 시작한다. 오늘(1일)과 8일(주일) 선교헌금 작성행사가 실시된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제

출하는 것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후원도 받고 있다.

선교헌금 작성은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신규 작성란'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해오던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작성란'에 해당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작성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속 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생년월일을 빼놓지 않고 기입해야 한다. 작성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 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현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을 적고,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현금봉투 방

식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후원연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다시 작성해야 한다.

올해 온누리선교의 3대 과제는 이주민선교, '블레싱 도쿄', 중국선교센터(MCC)건축이다(관련기사 5면). 문의: 02-3215-3616

#### 풍성한 축제, 러브소나타 10주년

올해는 온누리교회를 대표하는 축제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4월 고난주간 십아예배를 시작으로, 5월 존파이퍼 초청 집회,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집회, 6월 마리아행전, 7월 러브소나타 도쿄, 9월 '율어라 한반도' 집회, 10월 부흥축제 요셉행전까지 거의 매월 축제가 이어진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세상, 차세대와 청년,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부르짖는 마리아행전과 부흥축제 요셉행전, '율어라 한반도' 집회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러브소나타 10주년도 뜻 깊다. 일본 복음화를 꿈꾸며 시작한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와 교계 스스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교단과 교파의 벽을 무너뜨린 점도 관록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온누리교회는 더욱 성숙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나누고 섬기는 한 해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2017년 주요 목회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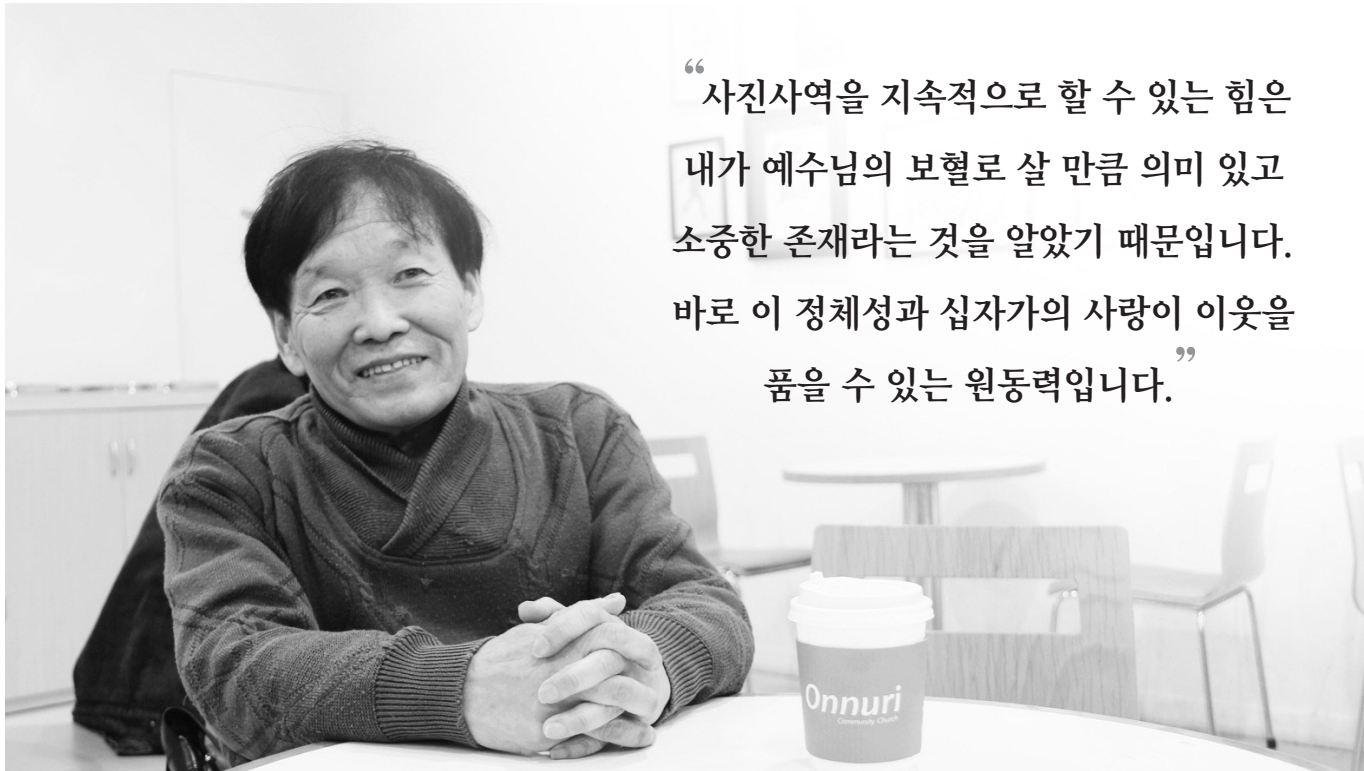
| 예배         | 요일               |
|------------|------------------|
| 1월 1일, 8일  | 선교헌금 작성 행사       |
| 2월 3일      | 해외 비전교회 컨퍼런스     |
| 6~9일       | 목회사관학교           |
| 3월 4일      | 목양대회             |
| 4월 10~14일  | 고난주간 십아예배        |
| 26~28일     | 회복축제             |
| 5월 26~28일  |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집회   |
| 27일        | 존파이퍼 초청 집회       |
| 29~30일     | 목회자 세미나/저녁집회(성도) |
| 6월 22~24일  | 마리아행전            |
| 7월 25~26일  | 러브소나타 10주년(도쿄)   |
| 8월 2일      |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
| 9월 16일     | 율어라 한반도          |
| 10월 18~20일 | 부흥축제 '요셉행전'      |
| 11월 25일    | 임직식              |
| 12월 2일     | 장로장립식            |

인물\_ 목상하는 목수들을 찾아서 2면 기획\_〈생명의 삶〉 창간 30주년 4면 대청\_순맛춤전도집회 6면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12

사진 찍는 목수 박종익 집사

## “작은 거인의 뷰파인더에는”



27년 동안 사진사역을 섬기고 있는 박종익 집사.

“사진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살 만큼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과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도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 말이다.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는 사진 찍는 목수다. 작은 거인 박종익 집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사진을 찍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온누리교회 각종 행사에 가면 늘 그가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진사역’은 소중한 은혜의 현장을 고스란히 기록하는 귀중한 사역이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 사진 한 장으로 이웃의 치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미소, 성령이 불타는 그때 그 집회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행복감에 사진사역에 헌신한 성도가 있다. 박종익 집사(마포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가면 여김없이 그를 만날 수 있다. 불편한 몸으로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며 은혜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그는 사진 덕분에 살았고, 사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 장애와 좌절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한번쯤 봤을 박 집사는 장애인이다.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 되는 작은 키와 굵은 등이 장애의 정도를 말해 주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태어난 그는 배를 고했다. 못 먹고 자란 탓에 구루병과 성장장애가 생겼다. 눈물겹고 가슴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고 격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힘이 넘친다. 사람들이 그를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장애가 심신을 정금같이 연단시켰다고 믿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장애가 넘어야 할 벽일 때도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선

물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손님이 오면 장애인인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장애가 흠이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학창시절 체육활동도 남들과 똑같이 했어요. 같이 달리기도 하고 5단 뽀름도 넘고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었죠.”

공부도 잘했다. 서울대학교 약대에 도전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다. 장애가 문제였다. “장애인은 입학이 어렵다”는 대학교수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세상과 멀어졌다. 3년을 두문 불출했다. 그를 세상으로 다시 이끌어 준 것이 사진이다. 돌아켜 보면 장애가 준 가장 큰 선물이라 바로 사진이다.

“작은 형님이 사진작가셨어요. 그 형님이 저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진이 너무 좋아서 다시 세상에 나왔고 서교동에 사진관을 열었어요.”

세상과 멀어졌던 박 집사가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 사진에 재능이 있었던 박 집사는 금방 성공케도에 올랐다. 작가들의 미술작품 사진을 주로 찍었는데 실력이 빼어나서 한국 화단에서 박 집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발의 멋쟁이 사진사 박종익이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40대가 가까워지자 ‘내가 언제까지 청춘일까?’라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서 방황하려던 찰나에 친구

가 온누리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했어요.”

###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그의 사진에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했다. 그때부터 재능을 살려 사진으로 은혜의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사진봉사자가 흔하지 않을 때였다. 1990년 온누리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그의 첫 번째 사진사역이었다. 그 이후 27년 동안 수많은 부흥집회, 성령집회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운영하는 사진관은 직원에게 맡기고 사진사역에 몰두할 정도로 심취했다. 그만큼 은혜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 재미있었고 은혜로웠다. 은혜의 현장을 찍을 때마다 그의 신앙도 새로워졌다. 그런데 딱 3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수많은 성도들이 초라한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과 신앙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찾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요 6:63)” 이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 성령 충만함을 맛보고,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렵고, 신경 쓰이던 성도들의 시선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말씀암송에도 힘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500구절이 넘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사진사역의 지경도 넓어졌다. 체육대회, 주일예배, 각종 집회, 세례식 등 다양한 교회행사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기부터 52기까지는 커피사진을 찍는 강의를 섬겼다.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그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힘든 줄도 몰랐다. 사진 실력도 나날이 좋아졌다. 연출된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순간을 잡아내는 ‘스냅사진’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사진 실력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지는 사진사역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지난 27년 동안 사진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했다. 박 집사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말씀’이라고 답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박 집사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흘러 나왔다.

“오직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사명감만 가지고 사역했다면 진작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사진사역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은혜가 가득한 사진을 찍는 비결도 말씀이라고 했다.

“사진사역은 은혜를 담는 것이예요. 아무리 기술 좋은 사진작가도 교회에 오면 제대로 찍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술이 좋아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은혜의 순간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은혜를 볼 수 있거든요.”

한창 진행 중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도 그를 만날 수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맨 앞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 사진도 찍고, 설교말씀도 정리해서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있다. 그가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더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익 집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

“하나님께서 욥기 32:8-9, 빌립보서 4:8-9, 로마서 12:2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물 스냅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제는 자연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성과 은혜도 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상담도 하고 싶어요.”

사역 때문에 힘들어 하는 성도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무작정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럼 금방 지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와 말씀을 주셨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말씀과 달란트를 살려서 사역하면 사역이 즐거워집니다.”

이 시대 요소를 추천 받습니다  
문의: 02-3215-3196  
메일: khj@onnuri.org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1:26~38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고통이 요구되어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둘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 셋째, 마리아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때, 어느 가정,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를 통해 보낼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여인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역할을 감당할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영성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요아킴이고, 어머니는 안나입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고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리암’입니다. 모세시대의 마리암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쓴 물약’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 사가라와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의 친척이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라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가라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의 역할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자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이와 대조적입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불신앙의 태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28절).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인사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30~33절).

이 네 구절의 말씀 속에 이사야서에 나타난 수많은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34절).

그러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 없이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에는 반드시 이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해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줍니다.

##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35~37절).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삶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 벌어지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

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 부부는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 영적으로는 영광, 육적으로는 고통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38절).

이 얼마나 담대하고 순종의 믿음입니까. 마리아의 대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진실 되면 전능자의 능력이 삶속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아무리 메시야의 출생이라고 하지만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혼한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도 위대합니다. 요셉도 믿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육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요구된 순종은 영적인 축복인 동시에 세상적으로 자신을 너무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리아가 엄청난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지만 평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천사가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나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가라에 비해 마리아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므로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눅 2:19).

마리아는 천사들이 와서 한 말을 마음으로 듣고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야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랑하고 초대교회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의 제자로, 성령 받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고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은 매우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순종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삶에 고통이 요구되어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성탄의 축복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고통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땅에서 삶을 온전히 드리는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되십시오.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마리아처럼 맑고 깨끗한 영성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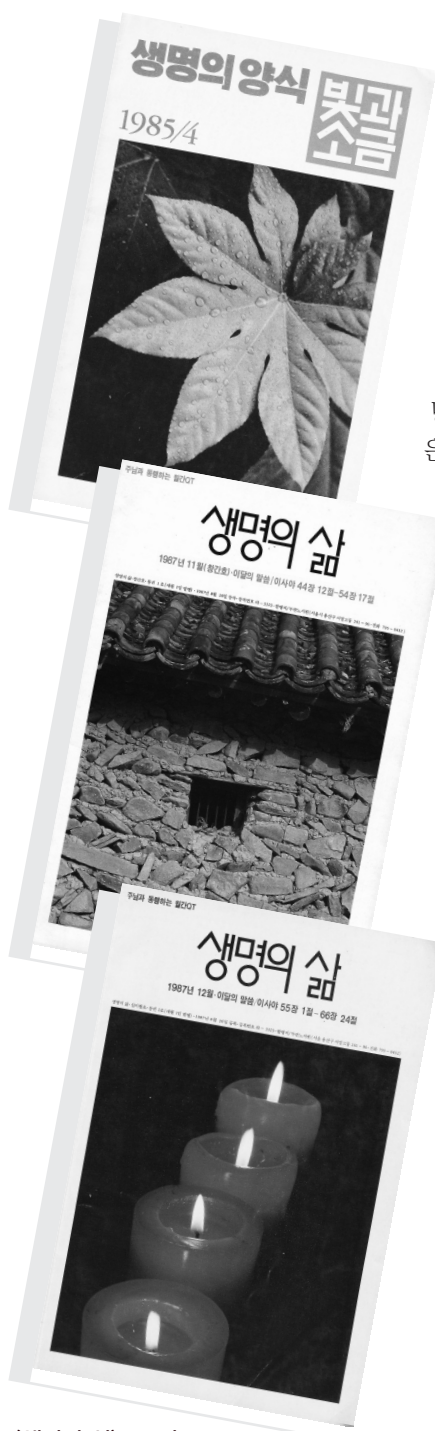
## 〈생명의 삶〉 창간 30주년

큐티 잡지 〈생명의 삶〉이 창간 30주년을 맞이했다. 1987년 11월 창간된 이래 한국어 버전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우리말성경판, 큰 글자 개역개정판, 큰 글자 우리말성경판 등)은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태국어 등 8개 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큐티 잡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두란노 서원은 “〈생명의 삶〉이 작지만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 교회를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매일 만나는 하나님

1987년 11월 창간 30년 동안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도약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9개 국어 출간



### 부록으로 시작해 9개 국어로 출간되 기까지

1985년 〈빛과 소금〉 부록에 수록된 것이 〈생명의 삶〉의 시초다. 시작은 이랬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알게 된 하용조 목사와 이형기 사모는 “매일 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Quiet Time)을 갖는 일보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생

활에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누구나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큐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큐티지 제작에 돌입했다.

〈빛과 소금〉이 창간된 1985년 4월 부록에 〈생명의 양식〉(생명의 삶 전신)을 수록했더니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래서 1987년 11월 ‘주님과 동행하는 월간 QT’라는 주제로 〈생명의 삶〉이 독립 창간됐다.

그 이후 〈생명의 삶〉은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인 큐티 보급화에 크게 기여했다. 큐티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명의 삶〉은 끊임없이 도약하고 비상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영어가 통용되는

72개국에 큐티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씩 이뤄가기 시작했다. LA 두란노서원이 설립된 직후인 1992년 영어판 〈Living Life〉를 창간했다.

〈Living Life〉 창간호가 나오자마자 중국어판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 9월 중국어판 〈생명의 삶〉이 창간되었다. 그렇게 중화권에 큐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중화권에서 중국어판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성인 크리스천이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었다.

현재 〈생명의 삶〉은 영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태국어 등으로도 번역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서선교 도구로 자리 잡았다.

〈생명의 삶〉은 한국의 천만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했다.

최근에는 표지와 내지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젊은 감각이 돋보이고, 풍성한 콘텐츠를 자랑하는 큐티 잡지로 성장했다. 앞으로 ‘크리스천 인생론’, ‘QT 스토리’, ‘시와 묵상’, ‘사랑하는 청년에게’, ‘다시 꿈꾸는 하나님 나라’ 등 기라성 같은 국내외 목사들의 신앙 간증 및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큐티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1. 영적 성장과 성숙에 탁월하다
2. 가정예배가 살아난다.
3.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준다.
4. 교회의 리더(교사, 부모 등)로 훈련받고 세워진다
5. 선교사들의 영성을 단련하고, 열방을 제자 삼게 된다.

### 간증

##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명절”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과 학교로 보내느라 늘 분주한 아침이지만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큐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날도 그랬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에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신 5:12).

이 한 구절 말씀이 가슴에 박혔다. 하나님은 내게 큐티를 통해 안식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다. 그런데 큰 고민이 생겼다. 다가오는 명절 연휴에 주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댁은 불교 집안이다. 게다가 시댁은 종갓집 장손집이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럴 수 없었다. 하나님이 단호히 명하신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명절을 앞두고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곱씹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명절 연휴가 시작됐다. 열심히

전을 부치고 여러 음식을 만들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시댁 식구들을 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드디어 주일예배 시간이 다가왔다. 속으로 기도하며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을 꺼냈다. 남편은 식구들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인지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 남편이 용기 내어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시댁 식구들이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카들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했다. 조카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바로 그날 큐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명절이었다. 하나님이 시댁 식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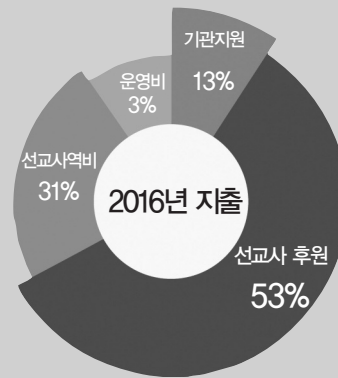
/ 옥명자 씨(인천시 거주)

### 〈생명의 삶〉 30년

1985년 4월 〈빛과 소금〉 부록으로 〈생명의 양식〉 창간  
1987년 11월 〈생명의 삶〉 창간  
1992년 2월 〈생명의 삶〉 영어판 〈Living Life〉 출간  
1993년 9월 〈생명의 삶〉 중국어판 〈活潑的生命〉 출간  
1995년 8월 〈생명의 삶〉 일본어판 〈リビングライフ〉 출간  
2007년 2월 〈생명의 삶〉 러시아어판 출간  
2009년 12월 〈생명의 삶〉 스페인어판 〈Vida Viva〉 출간  
2011년 2월 〈생명의 삶〉 인도네시아어판 출간  
10월 〈생명의 삶〉 파키스탄어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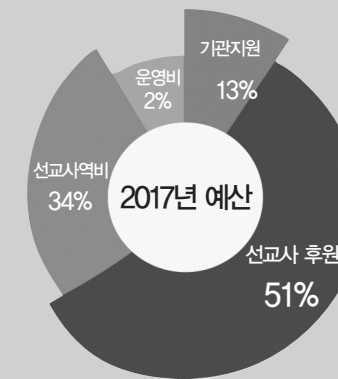
## 2017 선교헌금 작성

1.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2. 2000선교 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 2016 선교 보고

- 1 온누리M센터 건축
- 2 온누리M선교사 탄생
- 3 감비아 어린이 비전센터



## 2017 선교 3대 과제

- 1 이주민 선교
- 2 블레싱 도교
- 3 선교 중국

##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 2017 선교과제 이주민 선교, 블레싱 도교, 중국선교센터 건축

온누리교회 선교는 한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선교를 위해 태어났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이유도 그 까닭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누구나 선교사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2000선교본부는 매년 새해 과제와 더불어 지난해 선교헌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올해 선교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지난해 선교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고하기 위해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2017년 온누리교회 선교 3대 과제

## 이주민 선교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와 선교본부가 '이주민 선교'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 김포와 발안지역에 제2의 M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김포지역은 김포 공동체, 발안지역은 수원캠퍼스와 연합해서 사역할 계획이다. 남양주와 인천 지역에도 M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주민 예배를 개척할 예정이다.

## 블레싱 도교

러브소나타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다. 일 본 땅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전도집회가 벌써 10년이나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도교 러브소나타에서 온누리 교회 모든 캠퍼스와 공동체가 함께 블레싱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중국선교센터(Mission China Center) 건축 '선교중국'이라는 비전을 따라 중국 교회를

돕고,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갈 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해 제주도 드림교회와 함께 중국선교센터(Mission China Center)를 건축할 예정이다. 중국선교센터에는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Acts29 비전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다. 중국 교회가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선교지도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센터가 될 것이다.

## 2016 온누리교회 선교 보고

## 안산 온누리M센터 건축

1993년부터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들(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역해 온 온누리M미션이 지난 5월 안산시 원곡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New 온누리M센터'를 건립했다. 4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다. 우리에게 다가온 200만의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열

심히 돕고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들을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의 플랫폼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회 러시아 유학생 연합집회(RUSTA)

제1회 러시아 유학생 연합집회가 지난해 9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되었다. 온누리M미션 러시아 예배와 전국 CIS연합회 소속 10개 러시아 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러시아 언어권 유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1호 온누리M선교사 탄생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제1호 M선교사가 탄생했다. 윤용순 선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윤 선교사는 안산 온누리M센터에서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고 있다.

## 스와힐리족 사역 센터(탄자니아)

온누리교회는 1996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스와힐리족을 입양했다. 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선교를 해왔지만 뚜렷한 사역의 교두보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스와힐리족 사역을 위해 탄자니아 우테데 지역 나파게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여 주중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교회로 이용되고 있다.

## 서부 아프리카 어린이 사역 비전센터

서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빈곤하고, 영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이곳 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다. 감비아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 복음의 불모지다. 어린이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지난해 12월 감비아에 어린이 비전센터를 세우고 교회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교협별 교회 및 선교 비전센터(네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파송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올네이션스비전센터(ANVC)는 지난 5년 동안 3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10개의 협력교회를 헌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ANVC 복합건물 헌당식'이 있었다. 차세대 사역과 선교 지향적 교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Acts29 비전빌리지, 장단기 선교사훈련

Acts29 비전빌리지는 지난해 장기선교사 훈련과정 OSOM(17주)을 통해 장기선교사 32명(자녀 12명)과 단기선교사 훈련과정 TP(4주)를 통해 선교사 47명을 배출했다.

## 온누리교회 목회철학과 비전 소개

선교지 리더십들에게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선교비전, 온누리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비타민C'가 올해 6번째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온 교회 지도자가 무려 1,604명이나 된다.

## 2016 선교사 파송 현황

온누리교회 누적 파송 선교사는 1,909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파송된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 49명, 타단체 소속 26명, 전문인자비량 6명, 현지인 선교사 7명, 단기 선교사 51명, 장학 3명, 55세 이상 갈렙선교사 3명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선교사는 75개국 908명이다.



탄자니아에 건축한 유치원.



하늘공동체 전도집회에서 친구에게 팔찌를 채워주고있다.



W공동체 드라마 팀 공연.

## 친구가 친구에게 소개한 ‘예수님’

### 대학청년부 순맞춤전도집회 “함께 교회가자”

친구의 친(親)은 친척, 구(舊)는 ‘오랜 벗’을 뜻한다. 그만큼 자신과 가깝고 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또 다른 말로 ‘동지’라고도 한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행동하는 사이를 일컫는다. 재밌는 것, 좋은 것,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른다. 대학청년부가 바로 그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순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각 공동체별로 두 달 동안이나 이어졌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형주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길 바라!”  
“친구야, 이제 좀 민자. 벌써 15년이다.”  
“네가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가장 친한 친구를 순맞춤전도집회에 초청한 친구들의 속마음이다. 중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직장 동료, 군대 동기까지 어디서 만난 친구인지는 달라도 그 소중한 친구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하나였다.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하는 날만을 기다려온 친구들에게 이번 순맞춤전도집회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

#### 이때가 기회다!

대학부 하늘공동체 박진홍 자매는 대학교 친구를 이번 순맞춤전도집회에 초청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유희문화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 친구는 교회에 가자는 권유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친구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했다. 그때 순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때가 기회다!”

용기내서 그 친구에게 순맞춤전도집회 초대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흔쾌히 오겠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죠. 이번 순맞춤전도집회를 계기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공동체 박예슬 자매는 6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를 순맞춤전도집회에 초청했다. 성격이 비숫해서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붙어 다녔다. 그 친구에게 얼마 전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볼까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불만이라고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때가 순맞춤전도집회 2주 전이었어요. 곧바로 그 친구를 초청했어요.”

순맞춤전도집회에서 박예슬 자매가 친구에게 쓴 편지를 건네주며 닫힌 친구의 마음 문을 두드렸다.

“친구야, 하나님은 너의 힘든 것을 알고 계시. 지금도 너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고...” 편지를 읽은 친구가 하염없이 울었다. 그 모

습을 보고 박예슬 자매는 하나님이 친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고 굳게 확신했다.

크리스마스만큼 전도하기 좋은 날이 또 있을까. W공동체는 크리스마스에 순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W공동체 한창학 형제는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를 순맞춤전도집회에 초청했다. 한창학 형제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다. 새 신자라는 말이 아직 더 익숙할 때도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왔다. 그런 그가 직장동료를 순맞춤전도집회에 초청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데 전도가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전에 같이 직장 생활했던 형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의 초청을 받은 전도대상자는 정성욱 형제다. 교회를 떠났던 그가 다시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후배의 초청으로 온 W공동체 순맞춤전도집회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새로운 소망도 생겼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나만의 믿음을 찾고 싶어요.”

### 사랑하는 친구에게

#### 소중한 친구 선이와 소라에게

“나의 소중한 친구 선이야, 소라야~ 풋풋했던 대학생 시절 열심히 시험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명동에서 파티했던 거 기억하니? 대학원 들어와서는 함께 실험하면서 밤새 수다 떨고 맛있는 것도 참 많이 먹었지.

항상 내 친구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함께했던 그 긴 시간 동안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언제나 변함없으셔서 믿을 수밖에 없고,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 너무 좋은 분을 너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 언제나 선이와 소라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너

희가 꼭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교회까지 먼 길 오기 힘들었을텐데 기꺼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 너희들의 친구 애리가

#### 사랑하는 금나에게

오늘 교회에 난생처음 왔는데 너무 놀랐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 교회에 가면 길고 재미없는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예상과 달리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미있고, 공감되는 내용

이 많더라.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준비된 순서를 함께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선물까지 받았을 때는 기분이 배로 좋아지더라.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갈게. 그때 또 보자.

/ 너의 친구 원지가

#### 고마운 친구 지윤이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매주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 설교 듣는 것이 지루했고, 이전 교회에서 상자를 돌려가며 헌금을 걷는 것도 썩 유쾌하지 않았거든.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내가 왜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런데 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 처음으로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더라. 교회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각자의 전공을 살린 공연과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순모임이 너무 즐거웠나봐. 이제는 나 스스로 교회에 흥미가 생겨서 가게 될 것 같아. 무엇보다 너와 함께 온누리교회에 가보고 싶어. 오랜만에 꽃을 받아들고 집에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 온누리교회가 내게 은은한 꽃향기로 기억될 것 같아. 고마워 친구야.

/ 너를 사랑하는 정은이가

## 온누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버스 기사, 이주민, 시민, 안개 순원에게 성탄 선물

온누리와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는 난로보다 따뜻했다. 버스 기사, 이주민, 시민, 안개 순원, 미신자들에게 잊지 못할 성탄 선물을 줬기 때문이다. 서빙고 특별한초대공동체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버스정류장에 정착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안산M센터와 허브대학부는 이주민들에게, 경배와 찬양과 강동 온누리교회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브릿지33+공동체는 안개 순원과 미신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뻐했다.



### 특별한초대, ‘해피 Bus데이’ 프로젝트

크리스마스이브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해피 Bus데이’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서빙고 특별한초대공동체 지체들이 버스 기사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고, 성탄선물을 나눠줬다. 버스정류장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꾸몄다.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와 트리, 눈사람, 신나는 캐럴까지 준비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한 외국인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버스 기사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한 버스 기사는 “일하느라 성탄절 기분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덕분에 무척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인사했다.

### 안산M센터, 허브공동체, 이주민과 함께!

안산M센터는 이주민을 위한 ‘성탄절M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개국에서 온 이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직 예수



를 믿지 않는 이주민들도 참석했다. 대학청년부 허브공동체 청년 24명은 봉사자로 섬겼다.

아마르자르갈(몽골)은 “이번 공연을 보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하은 자매(허브대학부)는 “각국에서 모인 이주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다문화가정 대학생들과 안산M센터에서 사역하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수여됐다.



### 경배와 찬양 거리행진 “예수 나셨다”

경배와 찬양(올네이션스)은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 서빙고역에서 출발한 경배와 찬양 거리행진팀은 시청광장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30분씩 예배를 드렸다.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자”고 외치는 경배와 찬양 거리행진팀의 외침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화답했다. 함께 찬양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송석배 성도(주열방교회)는 “서울 한복판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시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였다”고 했고, 대학로에서 만난 시민 조병현 씨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니 흥분한 분위기가 나서 좋았다”고 말했다.



### 강동, 크리스마스이브 전교인 전도공연

강동 온누리교회는 나비쇼펄 앞에서 ‘크리스마스이브 전교인 전도공연’을 펼쳤다. 시민들에게 예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렸다. 사이닝키즈(팝) 위십, 힙합 댄스, 휘슬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전도지와 선물도 나눠줬다. 오은규 목사는 ‘선물’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 브릿지33+공동체의 ‘따뜻한 만남’

브릿지33+공동체는 성탄절에 특별한 집회를 개최했다. ‘따뜻한 만남’이 바로 그것이다. 안개 순원들과 미신자들을 초청해 복된 소식을 나눴다.

소설인 자매(브릿지33+)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완벽했다”고 고백했고, 강기홍 집사(멘토)는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었다”고 했다. 처음 교회에 왔다는 김종화 씨는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 KIBI ‘샬롬 예루살렘’ 행사 준비 박차

### 봉사자 모집, 1월 9일 연합기도모임 실시

KIBI가 지난해 12월 24일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2016년 사역을 돌아보고 2017년을 내다봤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를 비롯한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KIBI의 주요 사역은 IBS교육원 개원, 2016 샬롬 예루살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스라엘 귀환사역, 귀환 유대인 금융사역 등이었다.

2017년에는 ‘2017 샬롬 예루살렘’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KIBI에서는 봉사자 300명을 모집하고 있다. 1월 9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연합기도모임이 열린다.

송만석 장로(KIBI 대표)는 성도들에게 “2017년 샬롬 예루살렘과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2-792-7075

## 사랑챔버·효성그룹 음악교육 지원 협약

사랑챔버와 효성그룹이 장애인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조현상 부사장(효성그룹), 박철웅 목사, 이정근 장로, 사랑챔버 단원과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효성그룹 조현상 부사장은 “사랑챔버의 연주 실력에 감탄했다”면서 “앞으로 사랑챔버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랑챔버를 통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랑챔버를 후원해 주는 효성그룹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2014년부터 사랑챔버를 후원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아기예수탄생 기념 그림대회’

### 온누리도서관, 봉사자 모집

온누리도서관이 지난해 12월 4일과 11일 ‘제2회 아기예수탄생 기념 그림대회’를 개최했다. 어린이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 그림대회의 시상식이 지난 주일(12월 25일)에 있었다. 사랑상 3명, 소망상 10명, 믿음상 15명 총 어린이 28명이 수상했다.

사랑상을 수상한 여유현 어린이(9살)는 “공모전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도서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형세우 팀장 010-7404-7001

##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월 4일부터 25일까지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 상담센터에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1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선교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예비 중학생 1학년이 대상이다. 회비는 5만원.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02-793-2998

### 기부금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서류 발급

#### 온누리교회

즉시발급, 우편발송: www.onnuri.org  
방문발급(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재정팀  
양재 및 캠퍼스: 목회지원실  
문의: 02-3215-3265

#### CGNTV

www.cgntv.net(1월 9일부터)  
국세청: www.hometax.go.kr  
(1월 중순 예정)  
문의: 후원관리팀 02-796-2243

